

##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Ⅱ)

— 18세기 후반 북학사상을 중심으로 —

정 혜 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The Costume in the Era of Practical Science (Ⅱ)

— The Bukhak idea in the late of the 18th century —

Era Hye Gyung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1993. 9. 10 접수)

####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process of changes of the costume in the era of practical science, and to search the bukhaek's view of the costume.

Conclus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

1. The bukhaek pursued the function and the rationality in men's costumes, and dealt with the welfare point of view in the commons and humbles clothes, and criticized the phenomenon of over-fashion in women's costume.
2. They contended for thrift against the luxury. But as they had also a modern thinking at the same time, they seemed to have a flexibility. Therefore they pursued the essential courtesy in manners and costume.
3. The common people of Yi dynasty had the idea that yi dynasty is a small China replace by Ming dynasty. But the bukhaek had a self-existent standpoint and a realistic idea to the Ch'ing dynasty. But they would have received the Ming's culture as the reactionism in the costume. Chinese envied or ridiculed the korean costume.
4. It was the pursuit of the rationality that the Bukhaek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costume. They contended for the growth of the busines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ique in order to reform the clothing industry.

## 제 1 장 서 론

조선시대는 유교를 정치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던 성리학적 명분사회였으므로 이 시대의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는 당시의 시대사상과 가치관을 통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복식사 발전 전개에 있어서 그 변환점을 국가의 흥망성쇠, 외교관계, 전쟁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 찾아 역사를 구분해오던 종전의 연구방법상에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성리학은 고려말에 받아들여진 후 16세기 후반에 토착화되어 국정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그러던중 조선후기에 중원(中原)에는 청(淸)이 들어왔고 조선도 병자호란(1636년)으로 청에 굴복하게되자 화이사상(華夷思想)에 젖은 유학자들은 북벌론(北伐論)을 내세우고 조선이야말로 중화문화의 계승자라는 인식하에 조선중화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조선은 실제적으로 폐쇄된 사회가되어 사회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오히려 청은 한문화를 수용하여 건륭문화(乾隆文化)를 이루고 발달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였으니, 이에 조선사회를 개방시켜 선진화된 청의 문화를 수용하고 북학학자는 각성이 일게 되었다.

18세기후반에 출현한 이 북학파는 일명 이용후생학파라 칭하기도 하는데, 청으로의 연행(燕行)에 나섰던 일부 노론 지식인들이 그 문물의 영향을 받아 실학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다. 북학파의 선두는 홍대용(洪大容 : 1731~1791)이며 뒤를 이어 박지원(朴趾源 : 1737~1805) 박제가(朴齊家 : 1750~1815) 이덕무(李德懋 : 1741~1793) 등이 있다.

북학사상에 대한 이해에 앞서 실학운동의 정신을 살펴보면 이는 유학의 실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서 그 충실화의 운동이며, 유학에 대한 반동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sup>2)</sup> 마찬가지로 북학사상도 그 속에 유교적 전통사회를 포함하면서 점차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상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연구의 목적은 실학 사상적 배경하에서 조선후기 복식제도의 변화를 고찰하며, 실학적 사고에 의한 복식관이 당시와 그 이후 복식문화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여 복식사 발전의 방향을 이해하고자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18세기 후반에 있어서 북학과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의 저술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의 복식제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북학파의 관점에서 본 복식관으로서 당시의 의생활 풍속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조선의 대청관에 대한 변화와 아울러 중화, 조선복식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보았다. 넷째 조선후기 복식사 발전전개의 방향을 파악하기위해 북학파에 의한 복식문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다만 본연구에서 고찰되는 복식제도와 의생활 풍속은 북학파의 저술중 의복에 대해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므로 사회전반의 복식문화 현실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복식이나 혹은 관심 있는 계층의 복식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제 2 장 복 식 제 도

### 1. 남자 복식

남자복식에서는 연행 사절단 일행과 관계가 있는 조복(朝服), 공복(公服), 상복(常服), 군복(軍服), 용복(戎服)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은 비교적 단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 관료생활을 하기보다는 초야에서 학문의 증진과 후학지도에 힘쓰는 부류에 속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사절단의 주요복식인 군복(軍服), 용복(戎服)과 예를 존중했던 당시에 유학자들에게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심의(深衣), 그리고 서민과 천민의 복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1) 관복(官服)

저술에 나타난 관복의 종류중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군복과 용복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 (1) 군복(軍服)

군복은 연행시에 비장(裨將) 반당(伴當)들이 착용하였던 의복으로 기록되고 있다. 북학파중 홍대용은 자제비장(子弟裨將)으로 박지원은 반당으로 연행길에 나섰으며, 이들은 국경의 수성문(守城門)을 지나 압록강을 건널 때 자신들의 신분(身分)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다. 즉 홍대용은 포립(布笠)과 도포(道袍)를 벗고 전립(氈笠)에 군복을 입었으며<sup>3)</sup> 박지원은 은정(銀頂) 취우(翠羽)에 짧은소매(短袂)로 가뿐한 행장을 차렸다고 기록되어 있다.<sup>4)</sup>

그중 비장복식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비장들은 벌써 군복과 전립(戰笠)을 갖추었는데, 정수리에는 은화(銀花) 운월(雲月)을 세우고 공작 깃을 달았으며, 허리에는 남방사주(藍紡紗紬) 전대(纏帶)를 두르고 환도(環刀)를 찻으며, 손에는 짧은 채찍을 잡았다.”<sup>5)</sup>

주(注)에 비장은 국경안에서 천익(天翼)을 입다가 강을 건너면 협수(狹袖)로 바꿔 입었다고하여 군복중 전복이나 패자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이보다 20~40년 정도 후인 1800년대초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저술에 의하면 군복은 협수전복(夾袖戰服)과 패자(掛子), 세납의(細衲衣)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 협수전복이란 그 위에 패자를 덧입은 것으로 보아 협수와 동일명으로 동다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약용의 저술에 소개된 군복제도는 다음과 같다.

“군복(軍服)의 차림은 전립자(氈笠子: 문단(紋緞)으로 장식한다) 은정자(銀頂子) 공작미(孔雀尾) 청작미(靑雀尾) 밀화영(蜜花纓: 아주 큼) 협수전복(夾袖戰服: 심록색(深綠色), 더울때는 문사(紋紗)를 사용하고 추울때는 문단(紋緞)을 사용한다) 패자(掛子: 자색(紫色)) 요대(腰帶: 우단(羽緞)으로 만든다) 전대(纏帶: 남색 비단을 사용한다) 세납의(細衲衣: 주백(紬帛)을 사용한다)이고, 그 외에는 용복(戎服)과 같다.”<sup>6)</sup>

또한 천민계층인 군뇌(軍牢)의 복식으로서 군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행색이 매우 우스꽝스럽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색 운문단(雲紋緞)으로 안을 반친 전립(氈笠)의 꼭대기에 운월(雲月)을 매달고 다홍빛 깃장식을 걸었으며 전립 앞 이마에는 쇠붙이로 ‘용(勇)’자를 새겨 붙였다. 아침빛 삼베 협수전복(夾袖戰服)에 다홍빛 무명 배자(襪子)를 입고 허리에는 남방사주(藍紡紗紬) 전대(纏帶)를 두르고 어깨에는 주홍빛 무명실 대웅(大絨)을 걸치고, 발에는 미투리를 신었다.”<sup>7)</sup>

## (2) 용복(戎服)

용복은 첩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박지원은 첩리가 용복으로는 부적합하여 말타기에 거주장스러운 비실용적인 의복임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말 다루는 방법은 몹시 위태로운 것이다. 옷소매는 넓고 한삼(汗衫) 역시 길어 두손을 휘감아서 고삐를 당기고 채찍을 들려고할 때 모두 방해가되니

이것이 첫째 위태로움이요… 무장이 입는 옷이 첩리(帖裏)라 하는데 이는 곧 용복이다. 세상에 어찌 명색은 용복이면서 소매가 중의 삼(衫)같은 것이 있으리요. 이제 이 여덟 가지의 위태로움이 모두 넓은 소매와 한삼 때문이거늘”<sup>8)</sup>

참고로 정약용의 저술에 소개된 용복제도는 다음과 같다.

“용복(戎服: 戰服)의 차림은 자총립(紫駿笠)에 호수(虎鬚), 공작우(孔雀羽)의 전우(顛羽), 방우(旁羽)와 밀화영(蜜花纓: 혹은 금패(錦佩), 산호격자(珊瑚格子)를 사용한다)으로 장식한 것과 남사철익(藍紗綴翼: 당하관은 오총립(烏駿笠)과 철립(鐵笠)에 수정영(水晶纓)을 장식하고 청저철익(靑苧綴翼) 녹조대(綠條帶)이다) 홍조대(紅條帶) 만선호항(滿緞護項: 서피(鼠皮) 초연(貂緣)) 궁창(弓韞) 시복(矢箛: 활 1개에 대우전(大羽箭)이 5개, 체전(體箭)이 10개, 편전(片箭)이 10개, 통(筒)이 1개, 황수건(黃手巾)이 1개) 패검(佩劍: 금은으로 자피대(紫皮帶)를 장식한다) 등편(藤鞭: 은으로 장식하며 오사수건(烏紗手巾)이 있다) 수혜자(水鞋子: 비가오면 유혜자(油鞋子)를 신는다) 비구(臂鞵: 금단(錦緞)을 사용하여 만든다) 각지(角指: 활줄을 당기기 위함)이다.”<sup>9)</sup>

이상에서 군복은 간편한 차림으로 기능적이었으나 용복인 첩리는 그 형태가 관활하여져서 용도에 적합치 않은 비기능적인 의복으로 지적되고 있다.

## 2) 편복(便服)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편복이 있었으며 이들의 저술에는 심의(深衣, 도포(道袍), 학창의(鶴氅衣), 유의(油衣: 油衫)등이 보이지만 특별히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북학파의 합리적 비판적 사고를 표출시키고 있는 심의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 (1) 심의(深衣)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번성해지면서 심의는 주자(朱子)가 유자(儒子)의 옷으로 추천한 이후 유학자들에게 애용되었으며 유학자들의 저술중에는 대개 심의에 대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북학파들이 심의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들은 전대의 유학자들이 논한 바와 같이 한대(漢代)이후로 수많은 변론을 낳고 있는 심의제도에 대한 논의의 집합이 아니라 예기(禮記)에 기록된 심의제 자체를 나름

대로 분석, 비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은 심의를 착용한 경우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합리성, 실용성을 주장하는 그들이 이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오히려 당시에 유학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심의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으며 심의제에 얽매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의생활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들의 심의제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대용은 심의제도가 시복(時服)에 비해 비합리적이며, 또 제작하였을 때 본래 지니고 있는 뜻인 평정(平正)도 이루지 못함을 비판하였다. 이 심의제도는 주자대전에 수록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조선시대 중기 예학시대까지 고수된 전통적인 심의제로서 설이 없어 옷감이 마주보는 대금(對襟)양식의 심의이다. 따라서 입었을 때 양 옷감이 겹쳐지면서 심의의 앞단이 들려 올라가서 가지런하지 못한 것(평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시복과 비교하여 비판하고 있다.

즉 시복과 심의제도를 비교하여보면 시복은 의(衣) 전체나비의 1/3은 뒤에 1/3은 앞 우측에 1/3은 앞 좌측에 해당되며, 옷깃을 여몄을 때 앞과 뒤의 나비가 각각 같으므로 소매가 상의에 붙는 곳이 자연히 평균방정(平均方正)하게 된다. 그러나 심의는 의(衣)전체나비의 1/2은 뒤에 1/4은 앞 우측에 1/4은 앞 좌측에 해당되므로 옷깃을 여몄을 때 소매가 상의에 붙는 곳이 가슴쪽으로 기울어져 평정을 이루지 못하므로 주자(朱子)의 심의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sup>10)</sup>

박지원은 당시에 유학자들 간에 심의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실상 그 재료조차 모르고 제도에 대하여 끊임 없이 잘못된 논란만 거듭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심의의 재료는 한대(漢代) 정현(鄭玄)의 주에 15승(升) 포(布)라 하였고 주자는 백세포(白細布)라 하였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마포(麻布)라고 여겼지만 그외에 저(苧), 면(綿), 백(帛)등도 사용되었다.<sup>11)</sup> 이에 대하여 박지원은 예기 심의편(禮記 深衣篇)의 ‘완전하고 허비가 없으니 선의(善衣)의 다음가는 옷이다’는 구절을 들어 완전하고 허비가 없다는 말은 곧 검소함을 표시하므로 무명베를 일컫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12)</sup> 이는 앞서 퇴계(退溪)나 정구(鄭誥)등이 면포는 질기고 유연하여 심의 재료로 쓰기에 합당하다고 한 견해와 일치한다.<sup>13)</sup>

이덕무는 심의는 본래 인체의 장단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간편한 옷으로 상하, 남녀, 길흉에 통용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치수에 얽매어 넓고 길게 만들어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음을 비판하고 있다.<sup>14)</sup> 이와같은 비합리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의를 4례(四禮)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한백겸(韓白謙, 1552~1613)이 제시한 방령(方領)과 대금(對襟)양식의 새로운 심의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것이 옛날의 심의제도와는 다르지만 이것대로 하나의 옷이 되니 엄연히 입을 만 하다고 하였다.<sup>15)</sup>

이상에서 볼때 이들은 심의에 대하여 제도의 정확성 여부보다는 실제적 기능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백겸의 비판정신을 인정하는등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서민, 천민 복식

서민과 천민의 복식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이들의 궁핍한 의생활현실을 반영하여주고, 나아가 그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서 후생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단편적이거나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상인과 시골 백성, 하인들의 복식현상을 발췌하여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인의 복식은 단유(短襦)에 약립(藥笠: 대로 걸어 만든 삿갓)을 썼으며, 혜(鞋)와 삼(衫)은 금지되었다.<sup>16)</sup> 즉 비록 부를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엄격한 신분제와 기존질서를 고수하고자하는 보수적인 사회여건하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하였던 것이다. 박제가는 이같은 신분제의 한계가 사대부들로 하여금 일하는 풍토를 갖기 못하게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풍속은 글월만 숭상하고, 높이고 뒤돌아 보고 꺼림이 많으니 사대부는 차라리 놀고 먹을지라도 일하지 않는다... 그런고로 비록 집에 한푼의 돈이 없어도 모두 가장자리를 수식한 높은 것에 넓은 소매의 옷을 입고 나라안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만 치니 대저 그들의 의식(衣食)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sup>17)</sup>

다음으로 일반 백성의 복식에 대한 북학파의 관점은 중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 대하여 당시 정치세력이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서 생긴 사회적 빈곤에 대한 고발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난한 실생활을 잘 보여주는 내용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시골 백성들은 1년에 무명옷 한벌을 얻어입기 힘들고, 남자가 평생에 침구를 구경하지 못하고 짚자리로 이불을 대신하여 자손을 그 가운데서 키운다.

10살 전후까지는 거울 여름할 것 없이 벌거숭이로 다니고 천지에 신(鞋)이나 버선의 제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함이 모두 이와 같다. … 도시의 소녀들도 왕왕 종아리를 드러내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쩌다 새 옷을 입으면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보아 창녀인가 의심한다.”<sup>18)</sup>

또 백정의 옷으로 단후의(短後衣)가 소개되고 있는데 일종의 작업복으로서 앞이 길고 뒤는 짧은 형태의 옷인 듯하다.

“내 비록 구구한 소장부일지라도 산호 갓끈도 없이 단후의(短後衣)를 입고 짐승을 도살하면서 낭제(郎齊) 선생의 뒤를 따르기로 청했으니 이에 노래를 읊는다.”<sup>19)</sup>

서민과 천민의 복식에 대한 북학파의 견해는 신분제의 한계로 인하여 상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고 이용후생을 이루고자하여, 그 개선책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달 및 유통산업의 발전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개선책 등은 정책으로 적극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에 조선 후기 서민이나 천민의 생활이 불행한 현실속에 계속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2. 여자 복식

여자복식에 대한 기록은 주로 반가(班家) 부녀복식에 한정되고 있으며 복식의 형태는 좁은 저고리와 긴치마, 거대한 다리(襠)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처럼 극소화 극대화라는 양극으로 치닫는 형태는 예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유행되었다.

“부인의 옷웃은 좁고 소매는 길어서 허리까지 닿고 치마는 땅에 닿고 다리(襠)는 매우 크다.”<sup>20)</sup>

“유(襦)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치마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기만 하는데”<sup>21)</sup>

“지금 세상 부녀들의 옷웃은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요사스럽다. 옷깃을 좁게 깎은 삼(衫)이나 폭을 팽팽하게 뻗힌 치마는 요사스럽다.”<sup>22)</sup>

이러한 의복제도와 다리는 오랑캐 풍속이며 짧은 옷과 넓은 치마는 몽고의 유풍이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는 조선 유학자들이 지닌 화이사상(華夷思想)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치마의 형태를 살펴보면, 치마색은 담색(澹色)을 즐겨 입어 과파가 입은 옷빛과

다름이 없었으며 또 안에 짧고 좁은 흰치마를 입어 치마를 넓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족오흡(無足五疋)이니 칠흡(七疋)이라 이름하였다.<sup>23)</sup>

그에 비해 부녀들이 외출할 때는 상하계층의 구분없이 모두 얼굴을 가려 여전히 내외의 규범이 강조되는 예법에 따르는 일면을 볼 수 있다. 반가 부녀들은 외출시에 가마를 타고 휘장을 드리우고 하인의 아내들도 얼굴을 가리고야 외출하였으며 궁인(宮人)은 유모(帷帽)를 드리웠다.<sup>24)</sup> 아울러 예법에 엄격한 사대부 집안에서 부녀 예복으로 규의(袿衣), 궤계(鬮髻), 염의(裊衣)등을 사용하는 모습도 간혹 보인다.<sup>25)</sup> 이는 옛 중화의 복식으로 되돌아가는 복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것으로서 근본이 되는 옛것을 추구하는 유학의 기본사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풍속은 주변의 비웃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학파는 여자 복식에 있어서 지나친 유행현상이 예법에 어긋난다하여 비판하고 있으며, 옛 중화의 복식으로 돌아가려는 복고주의적 성향도 보이고 있다.

## 제3장의 생활 풍속

북학파의 저술속에는 당시의 의생활풍속을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내용들은 바로 사회전반의 의생활현상에 대한 북학파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경제적 상황과 관계가 깊은 사치와 검약, 유행에 관한 것과 유학의 중심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예(禮)와 의복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전자는 당시 사회의 경제적 부흥을 목표로 한 이용후생학파로서의 측면을 보여주며, 후자는 유학이라는 근본의 틀속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유학자로서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장의 내용은 사치와 검약, 유행에 대한 관념, 그리고 예의와 의생활이라는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되었다.

### 1. 사치와 검약, 유행

북학파의 저술중에는 당시 사회의 폐단으로서 의복이 사치로 치달고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디에서나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치는 재화를 낭비하는

것이며 비실용적인 것이므로 풍속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대용은 이러한 사치를 막고 검약하는 풍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50세가 된 후에야 명주옷을 입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sup>26)</sup> 또한 그는 자신의 삶에서 봄소 선비의 검약한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었으니 홍대용(洪大應)에 의하면 ‘자봉(自奉)이 배우 검박하셔서 의복은 봄만 가리우면 될 정도로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sup>27)</sup>

그런 반면에 박제가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적절한 소비가 요구된다는 수요공급의 경제이론을 내세워 지나친 검약 역시 의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지나칠 경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우리 나라는 검소한데도 쇠하여지니 왜그런가. 물건이 있어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검소함이지 자기에게 모든 것이 없다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이 검소는 아니다.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 쓸수록 가득하고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금수(錦繡)를 입지 않아서 금(錦)을 짜는 사람이 없어지고 여공(女紅)이 중지되었습니다.”<sup>28)</sup>

“다른 나라는 진실로 사치로써 망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으로 쇠했습니다.”<sup>29)</sup>

즉 그는 근대적 상업관을 지니 소비를 활발히 하는 것이 생산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소와 생산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였던 것이다.

이덕무는 거대하게 치장된 부녀자의 변체(辮髻)로 인하여 생명을 잃기까지 이른 사치의 폐단을 지적하고, 또 과거에는 부녀자의 패식(佩飾)이 바늘과 붓을 차서 일용에 대비하였으며 여자의 옷을 넉넉하게 만들어 시집을 때 입었던 옷을 소렴(小儉)할 때도 쓸 수 있는 등 실용적인데 비해 오직 사치를 좇아 재화만 낭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sup>30)</sup> 그는 복식의 유행이란 창기들의 자태를 부녀자들이 따르게 된 것으로 요사 요망스럽다고 하였으며 혹 마지못해 시속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치를 숭상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유행과 사치를 구분하기도 하였다.<sup>31)</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옛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며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합리적인 자세를 지녀 실학적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복학파는 사치에대하여 재화를 낭비하며 비실용적인 것이라하여 검약하는 풍조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박제가는 지나친 검약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므로 적절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근대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또 유행현상에 대하여는 현실을 다소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2. 예(禮)와 의생활

예의란 유교문화를 가장 유교문화답게 하는 바탕이 되는 문화성이다. 그러므로 의생활과 예와의 관계는 봉건적 유교질서를 전제로 한 조선시대에 있어서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진솔한 예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생활에서도 역시 예를 나타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대상황에 따라 예는 형식만이 강조되고 본질은 약화되기도 하여 때로는 다분히 비합리적일지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요구되었으며 자연히 체면, 체통을 지키고자하는 허례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었다. 특히 이덕무는 어떠한 기후나 상황하에서도 체통을 지켜 예를 갖추어야한다고 강조하고있어, 이들 조선 후기 개혁의 주체자들이 실학사상가이지만 그들이 지니는 시대적 사회적 한계속에서 아직도 외양을 중시하는 허례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허례는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와 외부에 드러난 의복이라는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니 실상은 의복은 허(虛)이며, 인간은 실(實)임을 잊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대용은 중국인이 비록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었다고 하나 실은 중화의 후손이요 조선인이 비록 넓은 소매의 옷을 입고 큰 갓을 쓰고 자랑하나 실은 바다위의 오랑캐에 불과하다고 하여<sup>32)</sup> 겉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고 있는 인간인 내면을 오히려 더 중요시해야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 그는 편의에 따라 유행성을 지니는 것이 예라고 하였으니 예절에 엄격한 인품이었던 그가 내린 정의는 근대적 사고의 실학자다운 면을 보여준다.

“주공(周公)의 제도는 주(周)나라의 편의에 따른 것이고, 주자(朱子)의 예는 송(宋)나라의 풍속에 따른 것이요, 그러므로 편의에 따르고 풍속에 맞추어서 줄이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는 것이니 정한 법이 없는 것

이오.”<sup>33)</sup>

이상 예와 의생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잔존한다 할지라도 걸치레나 체통을 중시하던 허례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여 진솔한 예, 내면을 존중하며 형식에 매이지 않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북학파중 특히 홍대용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점이라 하겠다.

## 제 4 장 중국, 조선복식의 관계

### 1. 당시의 대청관(對淸觀)

1636년(인조14)에 시작된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결국 청(淸)에 굴복하고 군신의 의리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삼라만상을 중화와 이적으로 구분시킨 화이(華夷)사상이라는 중화적 세계질서 속에 있었던 유학자들은 비록 조선이 무력에 의해 청에 굴복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들 오랑캐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조선중화주의를 제창하게 되었다.<sup>34)</sup>

그러나 조선은 국수주의적 폐쇄성으로 낙후하게 되고 오랑캐인 청은 한문화를 수용하여 찬란한 건륭문화(乾隆文化)를 이루었고 점차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여전히 청을 알보며 이적시하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부 실학자들에게서 청의 선진문화를 수용하고 북학하자는 각성이 일게 되었다.

당시 일반 지식층에 편만된 청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홍대용은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벌과 의관(衣冠)을 뺄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허황된 우월감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5)</sup> 이에 비해 북학파들의 대청관은 이러한 허식을 깨뜨리고 보다 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 북학하자는 입장에 서있었다. 이들의 대청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대용은 지구는 둥글므로 특정국가가 중심이 될 수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화(華)와 이(夷)의 구별이 없으며, 오히려 한인(漢人)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야하며 오랑캐에게도 배울 것은 배워야한다고 생각하였다.<sup>36)</sup> 나아가 화이(華夷)의 사상에서 벗어나 각각 제나라의 풍속을 인정하는 자주적인 입장을 지녔다.

박지원은 청 왕조와 한인(漢人) 문화를 서로 다른

이원적 구조로 이해하여 청문화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sup>37)</sup> 또 비록 화이를 인정하더라도 백성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오랑캐에게서 나온 법일지라도 취하여 본받아야한다는 이용후생적 입장에 서있었다.<sup>38)</sup>

박제가 역시 당시 일반인들이 호(胡)라는 말로 중국을 부정하려들지만 그 문명은 중국을 계승했으므로 청조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sup>39)</sup> 일면 그는 청조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모든 것을 모방하려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주성을 각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적 예측화와는 구별된다.

### 2. 중국복식에 대한 조선인의 시각

지금까지 중국복식에 대해 맹목적으로 존중하며 따랐던 조선은 청조(淸朝)가 들어선 후 특히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여진족인 청을 오랑캐라하여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치도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명복식제도를 고수하고있는 조선의 의관(衣冠)을 뺄내며 한족(漢族)들이 명의 의관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오랑캐의 옷을 입고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이같은 사실은 일부 한족들에게서도 스스로 수치로 여겨졌다.

반면에 북학파의 경우를 보면 청의 복식에 대하여는 각자의 풍속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녔고, 또 명의 복식에 대하여는 이를 근거로 조선 복식을 옛 체계로 바로잡고자하는 복고주의 성향을 지녔다. 이때의 복고주의란 이전까지의 생각과는 달리 자주적 입장에서 취할 것은 취한다는 진취성을 보이고 있기도하지만 이들이 처한 시대적 한계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화(華)와 이(夷)의 구별없이 복식제도가 각기 다른 제각기의 풍속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장보(章甫), 위모(委貌), 문신(文身), 주제(雕題)는 모두 하나의 습속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 그래서 각각 제나라 사람을 친애하고 제나라 임금을 높이고 제나라를 지키고 제 풍속에 안주하니 이는 중화나 오랑캐나 마찬가지이다.”<sup>40)</sup>

나아가 홍대용은 청의 호복이 중화의 의복에 비해 오히려 실용적임을 들어 청복식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봉액(縫掖)의 훌륭한 모습은 좌임(左衽)의 편리함과 같지 못하고, 손을 맞잡고 읊(揖)하는 허례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참다움만 못하고...”<sup>41)</sup>

이러한 견해는 청의 복식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자 한 입장이었다고 할 것이다.

복고주의적 성향은 명(明)의 복식에 대하여 복학과가 보인 입장중 그들의 이념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은 비록 청의 발달된 기술을 배우기 원했으나 복식에서만은 조선이 옛 중화의 제도인 명(明)의 복식으로 돌아가기를 구태여 권하고 있다. 이들이 명의 복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예는 여러 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덕무는 조정의 복식은 물론 일반 남자와 부인의 복식에 이르기까지 중화의 복식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sup>42)</sup> 이러한 지나친 복고주의는 사대주의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하지만 이덕무는 오히려 이러한 개혁이 예를 갖출 수도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여<sup>43)</sup> 예와 실용적인 두 측면을 함께 생각하고 있어 실학적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홍대용도 중국의 제도를 바로알아 조선의 복식제도를 바로 잡고자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국에서 전래된 전통적인 예복의 경우는 중국 선대(先代)의 본 제도에 따르고자 하여 중국 연경시장에서 관복의 진본을 구입하고자 하는 등 복고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sup>44)</sup>

이와같이 보다 원형에 가까운 복식제도로 돌아가고자 하여 복고주의 성향을 띤 것은 실학적 사고 자체가 탈유학이 아니라 오직 탈주자학으로서 원시유학으로 돌아가고자한 학문적 태도임을 인식한다면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당시에 청 복식을 오랑개의 것이라 하여 무시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었으나, 복학과에서는 청 복식 자체를 인정하고 또 명 복식제도로의 복고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복고주의는 지나친 중국문화의 모방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는 달리 자주적인 입장에서 중국(명)복식을 선택하였다. 즉 조선은 문화적인 면에서 조선중화주의로 자부심을 가지고 청과의 관계를 맺어 이제 더 이상 중국복식의 영향권 안에 속하지 않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것을 취사선택하였으니 이는 조선후기 우리복식의 발전방향이 국속화, 자주화로 향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 3. 조선복식에 대한 중국인의 시각

중국인 역시 조선복식에 대하여 상반된 두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조선이 명복식 제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부러워하며 자신들의 의관제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조선의 복식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 조롱하는 것이다.

전자는 중국 한족(漢族)선비들의 시각으로서 이들이 옛 제도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홍대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의관이 변한것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모두 화제로 삼을 뿐 아니라 가끔 우리의 옷차림을 보고 명나라의 옛제도라 일컬으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기색이 있었고...”<sup>45)</sup>

즉 이 한족들은 청의 무력에 의해 항복하여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게 되었으나 자신들의 복식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현재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하여 부끄러워 하였으며, 조선에 오히려 그 흔적이 남은 것을 보고 감회에 젖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에 비해 중국인이 조선의 복식을 조롱하는 모습은 주로 청족(淸族)이거나 명대(明代)의 옛 제도를 잊어버린 자들로서 이들은 특히 조선 사신의 의복에 대해서 모대(帽帶)를 보고 홍행장의 배우 같다고 하거나 두발(頭髮)이 부인과 같다고 하거나 도포와 혁대, 삿갓을 걸승과 같다고 비웃고 있다.<sup>46)</sup>

이상에서 볼 때 중국인은 조선의 복식이 명대의 복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혹은 조롱하고 있는데, 이는 한족과 청족의 각기 다른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 제5장 복식문화의 발전

조선후기사회는 양란이후 조선중화주의를 표방하여 모든 분야의 문화부문에 있어서 중국중심의 사고방식에 예속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조선의 고유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말에서 18세기전반에 이르면 조선고유문화의 창달은 일단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sup>47)</sup> 이같은 현상은 복식문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식의 자주화, 국속화라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즉 청이 들어선후 조선이 스스로 소중화(小中華)라는 인식으로 중국복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되고



복식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특별히 중국에서 유입된후 오랜 전통을 유지하여 온 예복에서도 국속화현상이 나타났으니, 최의(袞衣)나 심의등의 마름질 바느질법이 저고리와 유사하게 변형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sup>48)</sup>

그러나 18세기 중반이후에 이르러 북학운동이 전개되면서 기능적이며 실제적인 의복, 보다 합리적인 의생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복식문화의 발전은 전개되어 가고 있었다. 북학파가 복식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내용으로는 합리적인 의생활의 추구, 의류산업의 개혁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이용후생으로 국가를 번영시키고자한 북학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체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 1. 합리적 의생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생활이란 현실적, 실제적, 기능적, 편리함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전통적 사회는 옛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의생활 즉 변경된 습속에 따라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흥대용은 시대가 바뀌고 풍속이 변하여 법도가 행하여지지 않는데 억지로 거슬러 막는다면 그 혼란은 더욱 심하여질 것이라고 하여 현실적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sup>49)</sup> 이덕무 역시 변화된 현실을 되돌리기는 힘들며 풍속을 변화해서 오히려 세속을 놀라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여 현실적응을 주장하고있다.<sup>50)</sup>

그리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여 장례 풍속 중 염습(殮襲)시에 의복을 입히는 것은 오히려 흠을 멀리하게되어 유해를 소중히 간직하는데 해가되며 문채나는 비단도 흠의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다고 하였다.<sup>51)</sup> 그리하여 삶과 죽음의 길이 다르듯이, 베, 비단, 의복, 금침은 살아 계실 때 봉양하는 기구이며 그것들은 흠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유해를 더럽히는 것인데 오직 눈앞의 아름다움을 꾸미기에만 힘쓰다가 필경 더러워질 것을 생각지 못하니 이를 효도라 한다는지 도지혜롭다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sup>52)</sup> 또한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음식이라할 수 있듯이 입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의복이라하여 형식적인 것을 배제한 합리적 사고를 소유하였다.<sup>53)</sup>

보다 기능적이고 편리한 의생활을 이루기 위하여는

복식의 개량을 제안하여 이덕무는 구체적으로 갓, 한건(汗巾), 유의(油衣)등의 예를 들고 있다. 갓은 그 형태가 보다 기능적으로 되어야하며, 전립은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써야하고 그 형태도 기능적이 되도록 하고, 적삼 끝의 한건이 일하기에 불편하므로 없앨 것을 권하며, 조선의 유의와 여진족의 유의를 비교하기도 하였고, 사모 단령 품대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등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제안하고 있다.<sup>54)</sup>

이상에서 북학파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생활이란 현실에 적응하며 허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적인 것을 좇으며 의복의 기능성 실용성을 추구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 2. 의류산업 개혁론

북학파는 상공업의 유통과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용후생학파라 지칭되기도 하는데,<sup>55)</sup> 마찬가지로 의류산업의 개혁론에서도 상업과 기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 의류산업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면 농잠(農蠶)에 종사하는 자들의 이익이 매우 적어 누에 치는 자가 줄어들자 포백값이 오르고 물건이 귀해지기도 하였으며,<sup>56)</sup> 또한 선비가정의 부인들이 농사의 절반을 담당함으로써 부인이 의류제작에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의복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었다.<sup>57)</sup>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혁론중 먼저 상업에 의해서는 국내생산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격차를 줄여 백성의 의생활을 풍족하게하는 후생을 실현할 뿐아니라, 중국 및 세계각국의 무역을 통해 의복재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라의 부강을 이루며 세계적인 안목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이러한 주장들이 당장에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18세기부터 조선사회 체제의 변동으로 자본주의가 싹 튼 것과 연계하여 볼 때 이와 같은 방향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사상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상업이 발달하지못하여 생기는 폐단으로는 여러 지역으로 물건을 통용하지 않아 한쪽에서는 귀하나 다른 쪽에서는 버리게되는 현실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위해서는 교통수단이 개발되어야하며 특히 수레, 선박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육진(六鎭)의 마포(麻布), 관서(關西)의 명주(明

紬)… 이곳에서 남아도는 물건이 저곳에서는 쓰기가 부족하고 이름을 알아도 본적이 없는 것은 운반이 잘 되지 못한 탓이다.”<sup>58)</sup>

한편 교역에 있어서 중국에는 은을 주고 대신 물자를 사오는 잘못된 관례가 있었다. 박지원, 박제가는 이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 중상주의(重商主義)의 중금사상(重金思想)과 일맥상통한다.<sup>59)</sup>

“…그런데 이 막대한 양의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오는 것은 다만 취모(毳帽)뿐입니다. 취모는 겨울 석달만 쓰고나면 폐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나도 부서지지 않을 물건을 가지고 겨울 석달만 지나면 폐물로 내던지게 되는 물건으로 바꾸어 오고…”<sup>60)</sup>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수만냥의 은을 중국에 보내어 약(藥)과 주단(綢緞)을 무역해 온다… 은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물건이다. 그러나 약도 반나절이면 소화되어 버리고 비단은 사람을 장례지내는데 써서 반년이면 써어버린다.”<sup>61)</sup>

기술의 발달 역시 경제적 부강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의류산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의류직물의 생산성향상에 관심을 두었는데 박제가는 증산의 방법이 기술의 개량에 있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직물생산의 향상을 위하여서는 길쌈이나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중국의 직조기술과 제도를 배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6장 결 론

이상 18세기 후반 북학파의 관점에서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 내용은 복식제도, 의생활 풍속, 중국 조선 복식과의 관계, 복식문화의 발전이라는 네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졌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자의 복식제도는 군복(軍服), 용복(戎服), 심의(深衣)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북학파의 관점에서 본 용복 첩리(帖裏)는 비기능적인 의복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심의에 대하여는 종전의 유학자들과는 달리 예기(禮記)에 기록된 심의제 자체를 분석하여 제도에 얽매인 현실을 비판하고 실제적 기능적인 면을 추구하고 있다.

서민과 천민의 복식에 대하여는 사회 신분에 의한

제한과 궁핍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후생을 이루기 위한 개선책으로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및 상업의 발달을 내세우고 있다.

부녀의 복식은 거대한 다리(髻)와 좁은 저고리, 넓은 치마로 유행의 극에 이르고 있어 북학파는 이러한 현상이 예법에 어긋난다고 비난하였으며, 간혹 지나친 복고주의로 명대(明代)의 복식을 예복으로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2. 사치와 유행에 대한 북학파의 견해는 이것이 재화를 낭비하는 것이며 비실용적이므로 풍속을 개혁하여 검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옛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며 시속을 다소나마 인정하는 현실적인 자세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근대적 사고를 보였다.

예외와 의생활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전근대적인 모습들이 잔존한다 할지라도 체면이나 체통을 지키는 허례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예를 추구하였다. 특히 흉대용은 편의에 따라 융통성을 지니는 것이 예라 하여 그의 두드러진 실학적 사고를 엿보게 한다.

3. 병자호란이후 조선의 대중국관(對中國觀)은 이전과는 달리 문화적으로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조선중화주의에 젖게 되었다. 그러나 북학파는 이러한 허식을 깨뜨리고 제각기 풍속을 인정하는 자주적인 입장을 갖거나 혹은 청의 문화는 곧 중국을 계승한 것이라는 현실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이 청초의 복식을 무시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오히려 중화의 복식보다 더 실용적임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복식제도에 있어서만은 중화의 옛 제도인 명대의 복식을 받아들여려는 강한 복고주의에 젖은자도 있었으니 이같은 현상은 북학사상이 근본적으로 탈(脫)유학이 아니며 원시유학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상임을 반영해주고 있다.

중국인은 조선이 중화의 옛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혹은 조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한족(漢族)과 청족(淸族)의 각기 다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4. 조선이 중화주의를 표방한 이후 복식문화의 발전은 자주적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학사상에 의해 제기된 복식문화의 발전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습속에 따라 현실에 적응하며, 형

식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의생활, 그리고 복식을 개량하여 기능적이고 편리한 의생활이 되기를 추구하였다.

또 복식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의류산업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첫째는 상업의 발달로 지역간 생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무역으로 물자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 후생을 실현하며, 둘째로는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 인 용 문 헌

- 1) 鄭玉子, 韓國後期知性史, 一志社, 11, 1991.
- 2) 김태준, 洪大容評傳, 民音社, 285, 1987.
- 3)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三 桂坊日記.
- 4) 朴趾源, 熱河日記 第二輯 避暑錄 避暑錄序.
- 5) 朴趾源, 熱河日記 第一輯 度江錄 度江錄序.
- 6)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輯 公服議
- 7) 朴趾源, 熱河日記 渡江錄 渡江錄序
- 8) 朴趾源,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 9) 丁若鏞, 與猶堂全書 公服議
- 10)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一 小學家禮問疑.
- 11) 정혜경, 深衣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02~104, 1990.
- 12) 朴趾源, 熱河日記 口外異聞 深衣.
- 13) 柳長原, 常變通攷 卷之二 通禮 深衣制度. 鄭述, 寒岡集 卷之三 別紙.
- 1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八 禮記臆 深衣.
- 15)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八 禮記臆二 深衣.
- 16) 朴齊家, 北學議 商賈. 北學議 丙午正月二十二日 朝參時 典設署別提朴齊家所懷.
- 17) 朴齊家, 北學議 商賈.
- 18) 朴齊家, 北學議 進北學議 農蠶總論.
- 19) 洪大容, 湛軒書 內集三卷 贈閔朗卿送花山序.
- 20)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抗傳尺牘 乾淨衿筆談.
- 21) 朴齊家, 北學議 內編 女服.
- 2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飾.
- 2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飾.
- 24)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抗傳尺牘 乾淨衿筆談.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卷之二十七~二十九 士典 冬至.
- 25)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卷之一 士典一 服飾,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飾.
- 26) 洪大容, 湛軒書 內集 補遺 卷四 林下經綸.
- 27) 洪大應, 從兄湛軒先生遺事, 再引用, 김태준, 洪大容評傳, 民音社, 231~232, 1987.
- 28) 朴齊家, 北學議 內編 市井.
- 29) 朴齊家, 北學議 丙午正月二十二日 朝參時 典設署別提朴齊家所懷.
- 3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飾.
- 3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飾.
- 32)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三 抗傳尺牘 乾淨錄復語.
- 33)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三 與人書 二首.
- 34) 鄭玉子, 朝鮮後期知性史, 一志社, 19, 1991.
- 35) 朴趾源, 熱河日記 審勢編.
- 36)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三 與金直齊鍾厚書.
- 37) 河泰一, 北學波의 經濟論—朴趾源과 朴齊家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4~16, 1993.
- 38) 朴趾源, 熱河日記 駟迅隨筆.
- 39) 貞菴集 재인용, 金昶孝, 北學議에 나타난 朴齊家の 改革思想,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32, 1985.
- 40)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41)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4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五十七 盡業記四 易服之令. 卷之六十一 盡業記入 女服從華制.
- 4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飾.
- 44)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抗傳尺牘 與孫咨淵有義書.
- 45)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三 書 與金直齊鍾厚書.
- 46)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抗傳尺牘 乾淨衿筆談. 朴趾源, 熱河日記 銅蘭沙筆 銅蘭沙筆序.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一 盡業記入 論諸等.
- 47)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편, 한국사특강, 서울대 출판부, 184~192, 1990.
- 48) 李佇, 四禮便覽 卷之四 喪圖.

許傳, 士儀.

- 49)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5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二十七~二十九 士小節 卷之一 七典一 服飾.
- 51)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52)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5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二十七~二十九 士小節 卷之一 七典一 服飾.
- 5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二十七~二十九 士小節 卷之一 七典一 服飾, 卷之六十一 崑葉記入 笠當改造,

笠弊, 論諸笠.

- 55) 琴章泰, 한국실학사상연구, 集文堂, 23, 1987.
- 56) 朴齊家, 北學議 外編 農蠶總論 榜鎌之制.
- 57) 朴齊家, 北學議 進北學議 應旨進北學議疏.
- 58) 朴趾源, 熱河日記 駙迅隨筆 車制.
- 59) 文鎬柱, 북학파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43, 1988.
- 60) 朴趾源, 燕巖集, 賀金右相(履素)書 別紙.
- 61) 朴齊家, 北學議 內編 銀.